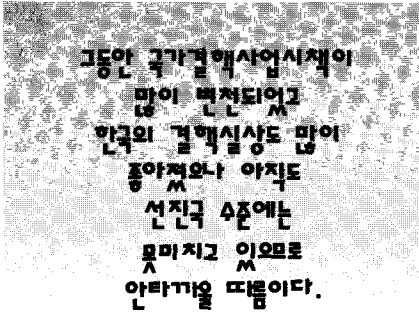


# 결핵사업에 대한 회고

김 재 원/충남 보사환경국 보건과 결핵관리외사



1964년도에 보건소장으로 부임하면서 결핵사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70년도에 대전서 보건소장 재직 중 일본국 결핵연구소에서 “결핵관리”연수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1971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결핵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결핵사업시책이 많이 변천되었고 한국의 결핵실상도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으므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동안에 경험했던 일들을 회고하는 것도 앞으로의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사업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 I. 결핵예방사업

### 1. BCG 예방접종

초창기에는 각시·도에 BCG팀이 조직되어 시·군의 벽지를 순회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실시하였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소재지 및 인근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BCG팀이 해체되어 지도간호사로 부임이 되고 또 읍·면·동에 결핵요원이 배치되므로 말미암아 현재제로 전환되었다. BCG접종 사업에서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가끔 말썽이 나고 있다.

#### ① 청화대 진정사건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와 대화를 하였더니 면요원이 불친절하게 대하였고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서울대학 병원에까지 가서 절개수술을 받고 돌아와 시간도 뺏기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화감에 진정을 했다고 하기에 요원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백배 사죄하고 수술상처만 치유되면 어린이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설명으로 해결했다.

#### ② 개업의와의 의견차이

화농성임파선염을 절개한 후 결핵치료를 해야된다는 개업의의 말을 듣고 보건소에 찾아갔으나 보건소에서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군수에게 진정서를 내겠다는 태도를 알려왔다. 가정방문을 해서 "BCG"라는 책자를 전달하면서 보건소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식시켰으며 그후 개업의와의 장시간에 걸친 의견교환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불행하게도 그 어린이는 절개창옆에 화농이 생겨 두번째 절개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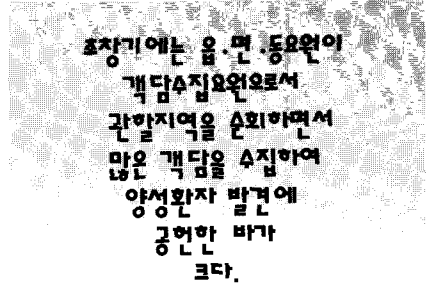
## 2. 화학예방치료

일본에서는 약 10년전부터 어린이에게 실시하다가 효과가 좋다고 인정되어 현재는 29세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금년부터 환자가족중 5세미만 어린이에게 결핵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INH 한가지약을 6개월간 투약하게 되었다.

## II. 환자발견사업

### 1. 객담검사

초창기에는 읍·면·동요원이 객담수집요원으로서 관할지역을 순회하면서 많은 객담을 수집하여 양성환자 발견에 공헌한 바가 크다. 보수성이 강한 지방에서는 가족계획요원과 마찬가지로 가정방문을 했다가 쫓겨나는 수도도 겪었다. 현재는 국민개보험시대를 맞이하여 조금만 아파도 환자 스스로 병의원을 찾아 오기



때문에 객담수집으로써의 환자발견효과는 감소되었으나 호흡기증세(기침과 가래)를 호소하는 환자와 허약자 및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객담수집을 하면 양성환자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

### 2. X-선 검사

환자발견을 위한 X-선집단검진은 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 주민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검진차가 부족하여 달구지나 "리어카"로 촬영기를 운반했던 일도 있으며 각시·도 결핵협회지부에 검진차가 배정되고서도 산간 오지에는 전기가 없어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였기에 검진요원이나 주민들이 발전기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다.

## III. 환자관리사업

### 1. 치료

1962년 보건소가 전국에 설치되고 결핵이 국가시책으로써 관리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에 결핵요원(당초에는 결핵협회 직원으로서 파견근무)이 배치되고 결

무슨 사업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사업이다.  
마치 결핵관계는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착각하여  
결핵경시품조가 각계각층에  
만연되어 있다.

핵업무(세균검사, 환자등록, 치료, 음·면요원 지도 감독등)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치약은 INH, PAS, SM등으로 장기처방이었으며 음성, 경증환자에게는 INH 단독요법을 실시하는 시행착오도 있었다. 또 독성이 강하고 효과도 적다고 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TB를 첨가하여 1주일에 두번 투약하는 간헐요법을 채택한 일도 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1980년대에는 E(S)HR 처방이 채택되어 양성환자에게는 9개월, 음성환자에게는 6개월 투약함으로 말미암아 치료중 환자를 감소시키고 치료효과를 올리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나 "결핵치료는 1년이상"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환자와 또 개업의, 공중보건과의사와 싸워야만했고, SM부작용 문제로 SM시주를 거부하여 표준처방이 EHR로 정착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EHRZ<sub>2</sub> 처방이 채택되어 결핵환자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또한 양성과 음성에 따라 처방이 다르든지, 투약개월수가 달랐으나 이제는 양성, 음성 구분없이 동일처방

으로 치료하게 되었다. 양성환자 치료도 6개월로 단축되어 조기중단율이 더욱 떨어지고, 치료효과도 좋아졌으나 아직도 전기한 바 고정관념을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하고 있다.

재치료에 있어서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적극치료토록 했으나 중단율도 높이고 치료효과도 적어 전문의료기관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 2 추구검사

처방에 따라 객담검사나 X-선검사시기가 결정되어 있으나 보건소에 따라 잘 지켜지지 아니하는 곳이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다. 보건소 결핵요원은 그 직분이 천분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인 요원이 많으나 음·면요원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상으로 과거를 간략하게 회고하면서 나름대로 개선할 사항을 생각해 본다.

1. 무슨 사업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사업이다. 마치 결핵관계는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착각하여 결핵경시품조가 각계각층에 만연되어 있다. 1년에 몇명 발생할까말까하는 급성전염병 대해서는 거국적으로 야단을 치고 있으나 1년에 결핵으로 사망하는 자가 수천명이 되는 데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현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의식구조를 개조하는데는 지도층에, 의료인에게, 결핵관계 종사자에게, 또한 국민에게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2. 의료인의 환자발견 신고제도가 강

화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신고가 부진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측에 의료비를 청구할 때, 결핵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신고필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제도화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3. 금년도 충남과 경기도 일부지역의 결핵실태조사에 참여 하였던 바 일반적으로 X-선검진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산간오지의 경우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적극 참여 해준 것을 생각할 때 주민집단검진은 산간오지 및 벽지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재치료 실패자가 격감하고 있으므로 일부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국비부담을 전환자에게 확대실시하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교통비징도도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

5. 결핵업무 종사자들의 정신자세 확립이다. 현재 미국을 위시하여 서구의 선진국들은 결핵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우리가 볼때는 아주 적은 수이기 는 하지만 결핵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AIDS의 확산도 문제이지만 결핵에 대한 안이한 생각, 결핵에 대한 방심이 주요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유병률이 떨어지고 AIDS 환자의 증가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결핵에 대하여 낙관시키고 헤이해지면 선진국과 같이 결핵환자가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유병률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후진국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결핵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로서 다음과 같은 희망사항을 하면 과

**AIDS 환자와 증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결핵에**  
**대하여 낙관시키고 헤이해지면**  
**선진국과 같이 결핵환자가**  
**증가할 것이다.**

욕이라고 웃겠지? 다들 웃으면서 기대를 해보자.

1. BCG접종이 아닌 먹는 약으로써 한번만 먹으면 일평생 결핵에 걸리지 아니하는 결핵예방약이 나왔으면.

2. 피부반응검사, 객담검사 혹은 혈액검사가 되었든기간에 한번 검사하면 100% 결핵을 진단하는 검사방법이 나왔으면.

3. 한번 먹으면... 이것은 너무하고 음성자는 1주일간, 양성자는 1개월만 먹어도 100% 완치되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아니하는 결핵치료약이 개발되었으면.

4. 배양검사 및 정확한 내성검사가 1주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검사방법이 개발되었으면. **ㅈ**



**약력**  
 경북 고령군 보건소장  
 대구시 동구·서구 보건소장, 대전시 보건소장 역임